

“미얀마 軍, 유혈진압 중단해야” 시도지사協, 공동성명서 발표

송하진 전북도지사 제안 채택
“군부, 국민·세계 요구 받아들여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미얀마 시민의 용기와 의지에 무한한 지지와 연대의 뜻을 전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1일 미얀마 군부가 유혈진압과 인권유린을 즉각 중단하도록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서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에 반대한 미얀마 시민 수백 명이 사망하고 어린이들까지 군부의 총탄에 희생되는 등 상황이 심각해진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시도지사협의회는 미얀마 군부의 인권유린과 유혈진압을 강하게 규탄하고 미얀마 국민에 대한 지지와 격려의 뜻을 밝혀 국내외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공동성명서 발표하는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

시민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촉구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특히 이번 성명서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제안에 전국 시도지사가 적극 공감하면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미얀마 군부는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과 국제사회의 요구를 즉각

받아들일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국민들은 쓰러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 결국 승리한다.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운동 등 시민들의 희생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를 당당히 증명하고 있다”며 “미얀마에도 민주주의의 봄이 찾아오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얀마 군부는 지난 2월 1일 쿠데타를 통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정부 주요인사를 구금하고 국민들을 무력 진압하면서 정권을 장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30일 현재 5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2500명이 넘는 시민들이 구금당하는 등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어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강성대 기자 ksd1008@metroseoul.co.kr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1일 코로나19 AZ백신을 접종 하고있다.

이철우 경북지사, 코로나19 AZ백신 접종

경북 1호 접종센터 포항남구 방문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4월 1일 오전 9시 안동시 보건소에서 백신을 접종 받고 오후에는 경북1호로 개소하는 포항남구 지역접종센터를 방문한다.

이날 백신접종은 지난 26일 질병관리청에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지자체장의 접종참여 독려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를 비롯해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현장대응요원들 50여명도 함께 접종 받는다.

현재, 도에서는 3월 25일부터 도내 요양병원·시설 등의 65세 이상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2만 7600여명에 대해 AZ접종을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최근 접종 후 혈전 발생 등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접종 동의를

이 67.9%로 전국 평균 75.4%로 보다 7.5% 낮은 상황으로 백신 접종에 대한 신뢰 회복과 접종률 제고를 위해 이 지사가 앞장섰다.

이 지사는 접종 후 “AZ백신은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생산된 효과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백신이다”면서 “코로나19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민들께서도 안심하고 접종에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북 1호 예방접종센터에서는 의료진, 행정, 소방인력 등 46명이 배치돼 1일 최대 600여명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며,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 이상반응에 대비해 119 구급차를 배치하고 가까운 병원 응급실과 연계체계를 구축했다. /경북=김귀열 기자 gold6830112@

목포시, 20억 투입 청년 창업자금 지원

평균금리 0.99%, 보증요율 0.8%
1인당 연간 금융비용 46.9만원 절감

목포시가 창업 초기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청년창업자 자금난 해소를 위해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2019년부터 추진한 청년창업자를 위한 금융(중소)지원 사업을 올해도 전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해 4월부터 추진한다.

중소지원사업은 목포시가 2억원을 출연하면 전남신용보증재단이 출연금의 10배인 20억원을 보증해 청년들이 지역신보에 일정수준의 보증료(1% 이하)를 내고 보증(최대 3천만원)

받으면 금융기관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까지 청년창업자중소지원 사업을 위해 총 4억원을 출연하고 188명의 청년창업자에게 41억 5000만 원을 보증했다. 이를 통해 대출받은 청년 창업자들은 1인당 연간 금융비용을 46만 9000원을(이자 38만원, 보증료 8만 9000원)절감할 수 있었다.

이는 일반보증을 이용할 경우 평균 금리 2.71%, 보증요율 1.2%를 적용받지만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이용하면 평균 0.99%금리에 0.8%의 보증요율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이다.

목포시와 전남신용보증재단이 사업 참여자(188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 여파 등 시장 악화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매출액 증가 및 수익성 개선에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청년창업자들의 생존과 일자리 유지에 순기능 작용을 하고 있다. 2019년 6월 개업해 수제 도라지청·금귤정과, 목포주전부리 3종 등을 판매하는 달달청나라 장승혁대표는 “자금을 쥐는 창업초기에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재료와 고가의 장비를 구입했고 금융비용도 절감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목포=양수영 기자 ysn6313@



온라인국제교류. /전남교육청

학생 1024명, 13개국과 ‘온라인 국제교류’

전남도교육청, 해외학교 매칭 지원

전남도교육청은 작년에 이어 ‘글로벌 전남 온라인 국제교류 Hello, e-Friends!’ 2기 71팀 1024명의 학생들이 세계 13개국의 학생들과 온라인 국제교류를 새롭게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은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 거의 불가능했던 학생들의 국제교류 활동을 온라인 교류로 전환해 중·고등학교 51팀, 750명의 학생들이 중국, 일본을 비롯한 13개국의 학생들

과 글로벌 우정을 나눌 수 있도록 해외 학교 매칭부터 언어지원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갖춰 지원했다.

학생들은 상대국 학교 학생들과 주제 중심 쌍방향 화상수업 및 상호 문화 소개, 홍보영상 발표, 기념품 교환, 개인별 SNS 교류 등을 통해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배우고 세계문명에 함께 공감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다짐을 하는 등 세계시민으로 한걸음 성장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광주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순조’

광주광역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조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4개년(2018~2022년) 계획에 따라 현재까지 97곳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완료했다. 전체 어린이집 대비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87곳) 11.5% 상승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비율도 지난해 10.3%에서 올해 13.2%로 2.9% 상승했으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증가로 공보육 어린이집 이용률도 지난해 31.7%에서 올해는 34.2%로 2.5% 증가했다.

광주시는 올해 말까지 25곳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추가해 총 122곳으로 늘리고, 내년에는 국공립어린이집 153곳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

무안군, 200억 산림공원 녹색사업 시동

산림휴양 등 14개분야 사업 실시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이 올해 총사업비 200억 원 규모의 산림공원 녹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의 자연을 통한 회복을 위해 산림휴양, 산림 조성, 산림보호, 공원녹지의 14개 분야의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치유의 숲과 산림욕장 등 산림휴양시설 조성, 숲교육 운영, 실내 정원 과 화산백련지 수목원 조성 등 102억 원의 산림휴양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도시숲 조성 6개소, 도시공원 및 소공원 조성, 가로수 사업으로 62억 원의 공원녹지 사업을 추진한다.

산림휴양사업과 공원녹지 사업이 완

료되면 다양한 산림서비스 제공과 공원녹지 확대로 군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군은 산림을 가꾸고 보호하기 위해 조림 35ha, 벌채 33ha, 숲가꾸기 407ha 등 15억 원 규모의 산림조성 사업과 산림사방·침식방지 4개소, 노거수·보호수 정비 39주, 임도 설치 및 보수 14km 등 21억 원 규모의 산림보호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물맞이골 치유의 숲과 전남도청 저수지 모두누리 열린 숲, 남악 수변공원 미세먼지 차단숲 등이 있으며 이와 함께 화산백련지에 수목원을 건립하고 무안국제공항, 전남도립도서관 내에 실내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무안(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부산시 “청년행복박스 제작 참여하세요”

지역 청년 외식사업가 모집

부산시가 ‘청년행복박스’ 제작에 참여할 지역 청년 외식사업가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행복박스는 지역 청년 외식사업가가 참여 제작한 밀키트로 구성해 코로나19로 지친 청년에게 따뜻한 한 끼의 행복을 전달하는 프로젝트로 준비됐다.

부산시는 지난 1호 행복박스 사업이 수혜자만 청년이었고 공급 측면에서는 청년이 연계돼 있지 않았으며 올해는 구성단계에서 공급자로 지역 청년 외식사

업가와 함께 행복박스 사업을 진행해 ‘청년이 청년에게 주는 행복 푸드박스’를 컨셉트로 주고받는 청년이 함께 위안을 얻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이를 위해 제작에 참여할 업체를 5일부터 11일까지 모집한다. 이후 전문가 심사를 거쳐 8개의 업체를 선정, 선정된 청년 외식사업가를 대상으로 부산푸드필름 페스타 사무국과 함께 협업해 온라인커머스 시장 진출을 위한 전문가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사업참여 후 상품개발 및 사업확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부산=허의원 기자 bsmorning@